

올 전북도 스타 소상공인 선정

대상에 익산 '빵곰언니와 호두파이공장'·최우수상에 '경천애인 영농조합법인'·'잇모닝'

전북도의 올해의 '스타 소상공인'에 빵곰언니와 호두파이공장 대표 이연경이 대상 수상에 영예를 안았다. 전북도는 2022 전라북도 스타 소상공인 공개 오디션 을 2일 전북도청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상에는 '빵곰언니와 호두파이공장(대표 이연경)', 최우수상 2팀에 '경천애인 영농조합법인(대표 김종춘)', '잇모닝(대표 김현우)'가 최고 스타 소상공인으로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유한회사 눈부신자연에(대표 전성수)', '(주)와이이이피(대표 유재욱)', '월드탑커피협동조합(대표 이은총)' 3개 업체가 선정됐다.

전라북도 스타 소상공인 육성사업은 2012년 국내 최초로 시작한 이래 올해로 11회째를 맞은 도내 대표 소상공인 지원 제도다. 이는 오디션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도민평가단이 직접 투표로 뽑아, 비즈니스 롤모델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2일 전북도와 전라북도 소상공인 광역지원센터는 스타 소상공인에 참여할 업체를 공개 모집한 결과, 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만큼 큰 인기를 끌었다.

이날 행사는 서류심사, 현장심사, 발표심사 등 3차의 예선 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한 6개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 오디션을 진행했다.



지난 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전라북도 스타 소상공인 공개오디션에 김관영 도지사(가운데)와 대상 수상한 빵곰언니와 호두파이공장(대표 이연경)을 비롯한 스타 소상공인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공개 오디션은 업체별 소개 동영상 발표, 심사위원 질의응답 순으로 심사가 이뤄졌다. 전문 심사위원 5명과 도민 심사위원 200여 명이 아이템 경쟁력과 차별성, 성장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평가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해 공개 오디션은 무관중으로 개최되고, 도민평가단이 직접 투표를 하며, 비즈니스 롤모델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대상 수상한 빵곰언니와 호두파이공장(대표 이연경)과 최우수상을 수상한 경천애인 영농조합법인(대표 김종춘), 잇모닝(대표 김현우)에는 전라북도 스타 소상공인 이 쓰여진 현판을 수여했다.

이와 함께 경영지원금을 대상 2,500만원, 최우수상 각 1,000만원씩 지급한다.

김관영 도지사는 "스타 소상공인 육성사업을 통해 코로나19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열고 또 다른 꿈과 희망을 품길 기원한다"며, "오늘 선정된 스타 소상공인들이 오늘과 같은 열정을 통해 지속 성장해 전라북도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LX, 공간정보 분야 중소

창업기업 투자 활성화 도모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공간정보 분야 중소·창업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도모한다.

LX는 2022 한국모래펀드의 제 4차 정기 출자사업 청년창업 분야 중 대상창업투자(주)가 운용하는 '대성 투계대 청년창업 투자조합'에 3년에 걸쳐 30억원을 출자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LX는 공간정보 청년창업 집중 투자를 통한 ESG 경영을 위해 출자를 결정했으며 투자유치대회를 개최해 우수기업 발굴에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LX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6년 간 '공간정보 활용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LX공간드림센터에 6개 공간정보 우수 스타트업,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장소·공간정보 데이터·마케팅 등 윈윈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또 국토정보 창업 공모전을 추가로 신설해 디지털트윈·드론 등 공간정보 활용, 재생에너지·미래차 등 친환경·ESG 테마버스·ICT 등의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뉴스

상호금융 전전여신 '15조원' 달성

전북농협, 농협중앙회 정례조회서 달성탑 수상

지난 2017년 10조 달성 이어 5년만에 5조원 성장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이 상호금융 전전여신 15조원을 달성하여 지난 2일 농협중앙회 정례조회에서 달성탑을 수상했다. 전북지역 92개 농축협이 상호금융여신이 지난 2017년 10조원을 달성한데 이어 5년만에 5조원 성장한 것이다.

이는, 코로나19로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급변하는 어려운 금융환경속에서 타 금융기관들과의 치열한 경쟁으로 이뤄낸 성과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전북농협 상호금융은 92개 지역농축협을 기반으로 324개 신용점포가 있으며, '새출발 농촌희망 저금리대출, 농업인 행복대출, 영농우대 특별저리 대출' 등 농업인 특화상품과 '햇살론, 사잇돌 중금리대출' 등 저소득 저신용자를 위한 서민금융 상품 판매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지역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꾸준히 해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정재호 본부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눈부신 실적으로 성장한 전북농협의 위상을 높여 준 농축협에 감사드린다"며 "남은 하반기에도 계획한 목표를 성실히 추진하여 농업인에게 실익을 주는, 국민과 함께하는 100년 전북농협을 만들어 나가자"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농협의 상호금융 대출금 달성탑은 예수금 달성탑과 더불어 지역농축협의 건전경영과 내실성장을 유도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전북농협 상호금융은 예수금 18조와 함께 금융자산 33조 규모로 성장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북은행, JB카드 간편 등록

'간·편·하·제 이벤트' 시행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JB카드 운영 대행사가 IC카드에서 KB국민카드로 변경됨에 따라 30일까지 인터넷 또는 모바일 결제 시 JB카드 간편 결제 등록을 위한 간·편·하·제 선착순 이벤트를 시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운영대행사 변경으로 기존 간편 결제에 등록된 카드 사용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JB카드 개인 신용 및 체크 카드를 대상으로 한다.

기간 내 간편 결제 등록 및 재등록 후 사용 시 500원 캐시백을 총 2만 200명에게 선착순 지급한다. 이용 금액과 응모조건 없이 1회 지급하며, 캐시백은 다음달 5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5일 이전에 기존 전북은행 간편 결제 카드가 등록된 경우라면 이미 등록된 카드를 삭제 후 재등록해야 한다. /뉴스

'어려운 이웃에 힘 되도록'

전북농협·전주원예농협, 추석 맞아

전북도에 쌀·성금 등 기탁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정재호)와 전주원예농협(조합장 김우철)은 추석을 맞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500만원 상당의 쌀(백미) 200포(1포 10kg)와 성금 1,500만원을 기탁했다.

지난 2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추석 맞이 사랑의 기탁식'에는 김관영 도지사와 정재호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장 김우철 전주원예농협 조합장,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동수 회장 등이 참석해 이웃과 함께하는 훈훈한 추석 명절 분위기를 조성했다.

정재호 본부장과 김우철 조합장은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도내 어려운 이웃들이 마음 따뜻한 명절을 보내 수 있도록 쌀을 기탁하게 됐다"며, "코로나19 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웃들



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항상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쌀과 현금을 기탁한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와 전주원예농협에 감사드린다"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소중히 전달해 어려운 이웃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감사한 뜻을 전했다.

기탁물품은 취약계층 및 장애인 시설, 아동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할 예정이다. /김경수 기자

우렁이농법으로 농가들에 '큰 호응'

해리농협, 2013년부터 시작... "농업경영비 절감 효과 커"

해리농협은 한국수력원자력(주)한전원자력본부 지원사업 우렁이농법 시작으로 현재까지 농가들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해리농협은 2013년 381ha(131농가)로 처음우렁이농법을 시작해 농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올해 847ha(307농가)를 기록했다. 이는 상반기 전체 면적 중 92%(927ha)에 달한다.

우렁이농법 지원 사업은 벼 재배를 위한 화학비료 및 농약사용 절감으로 고품질의 쌀 생산과 소비자들의 안심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또한 우렁이는 겨울철 병충해 등 물이 빠지게 되는데 폐사한 우렁이는 유기물로 환원 토양개량에 따른 화학비료 효과가 있어 화학비료 절감효과도 있다.

상하면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하고 있는 우렁이농법은 '친환경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주) 영광원자력본부'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지원했으며 올해 또한 우렁이 구입비용 1억4,000만원을 지원했다.

사업 첫해부터 2022년 현재 우렁이농업을 하고 있는 표상규씨(42)는 농약 사용 절감과 화학비료 절감으로 농업경영비 절감효과도 크고 참여하는 농가도 늘어나며 안전하고 고품질 쌀을 생산해 소비자에게 안심 먹거리를 제공 한다는 큰 자부심이 있다고 한다.

해리농협 김갑선 조합장은 "우렁이농법으로 수확된 고품질의 쌀 생산으로 코로나 시대 안심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북농협, 육산농협과 '농업인행복버스' 운영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과 군산시지부(지부장 김대호), 육산농협(조합장 박규석)은 지난 2일 관내 농업인 200여명을 대상으로 농업인 행복버스를 진행했다.

전북농협은 올해 김제 금남농협(조합장 최승운)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세 차례 행복버스를 운영했으며, 추가로 익산, 정읍, 완주 등 10개 지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군산=김관근 기자

농업인행복버스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농업인 실의 사업으로 양질의 의료, 문화, 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이날 이뤄진 농업인 행복버스는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한방 의료진료, 일상생활 편의 도모를 위한 검안과 톨보기 무상 제공으로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군산=김관근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